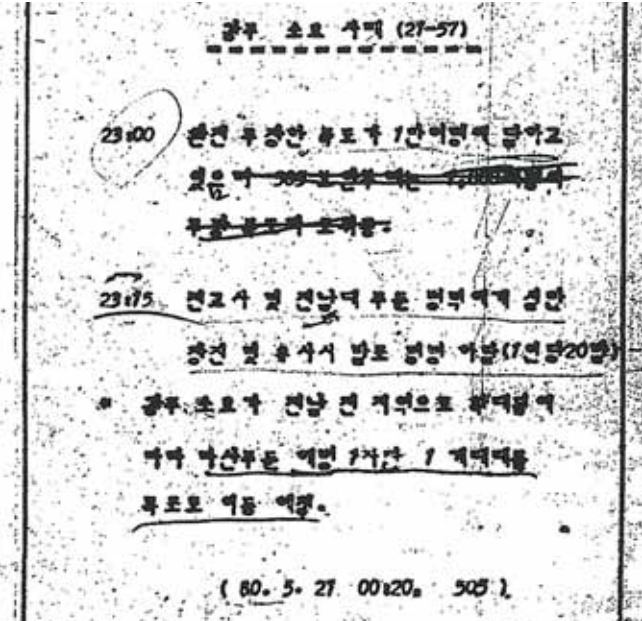


20일 밤 '발포명령 하달' ... 1시간도 안 돼 광주역서 집단발포

1995년 검찰조사 등을 통해 본 광주역·도청앞 집단발포
신군부, 학살 정당화 하려 발포 하루 뒤 자위권 발동한 듯



1980년 5월21일 광주지역 관할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소사태 (21-57)문서'. 23시15분 '발포명령 하달' 글자가 선명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0년 5월20일 밤 10시30분께 광주역 일대에서 최세창 여단장은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포하고 작전도록 지시한다. 시위가 격해지자 3공수여단 부대원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계엄군의 첫 집단 발포다.

집단 발포가 일어나 시민들이 사망하자 당시 군 수뇌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총정착간군 지시 및 조치사항'과 1995년 검찰조사 때 전두환 신문조서에 따르면 5월21일 새벽 4시30분께 국방부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중재 2군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현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계엄군의 광주 외곽 배치 ▲자위권 발동 ▲1개 연대의 추가 투입 ▲전투력 공백 보전책으로 2개 훈련단 훈련 동원 소집 ▲폭도 소탕작전은 5월23일 이후에 의령 실시 ▲경계 강화조치 등이 논의된다. 자위권 발동은 군인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나와있으며 특히 직책이 아닌 '전 각하'(全閣下)로 기록하며 실권자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37년 간 발포명령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도 나오지 않았던 까닭은 당시 신군부는 '발포명령'을 '자위권 발동'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996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자위권 발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포명령인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내려가고 실탄이

분배됐다는 이야기는 발포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정 전 사령관은 같은 조사에서 "자위권 발동은 ▲경고 후 3회 이상 정지 명령 ▲가능한 위협 발사 ▲급박하더라도 생명에 지장 없는 신체부위 사격 ▲선량한 주민 피해 없도록 유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는 검사 질문에 "사실상 교전 상황에서는 하되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자위권 발동을 하기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전 전 대통령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00시00분을 기해 발포해도 좋다', 지금부터 자위권을 행사한다'와 같은 식으로 자위권 행사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도 자위권 발동 하루 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10시50분까지 최규하 대통령에게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사실상 자위권 발동을 허락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군부는 오전 11시 주영복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등이 참석한 국방부 대책회의를 하고 이날 오후 7시30분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TV생방송을 통해 자위권 보유 천명을 거쳐 이튿날 자위권이 발동됐다.

도청앞과 광주역 집단발포를 정당화 하기 위해 서둘러 자위권을 확보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2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감사반장 진선미)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역차별"·민주당 "무차별" ... SOC 호남 확대론 공방

국감 현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호남 확대론'이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은 '푸대접·역차별'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차별·정치이슈화'로 맞섰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선수를 쳤다. 소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예산 불평등·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별이 있느냐"고 물은 뒤 "민주당에서는 과거 차별받은 지역의 예산에 관심을 두고 검토했다. 특히 순천 출신인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다른 의원들 눈치보면서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흑산공항 건설 예산을 신경 쓰는데 호

행안위 전남도 국감

야 "건의 예산 40~50% 반영"여 "고속철 노선 확정되면 지원"

남고속철은 노선이 확정되면 공사에 충분한 예산이 책정될 것이고 흑산공항 예산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도 "지역별 SOC 차이가 없는데도 이슈화되고 있다"면서 "호남고속철의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노선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확대론을 부각했다.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중 40~50%만 반영됐다"는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의 답변에 이용호(전북 남

원·임실·순창) 의원은 "호남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SOC 예산을 20%로 줄였다 해도 그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푸대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도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3000억원을 요구했지만 154억원만 반영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요구액도 15.1%인 455억원에 그쳤다"며 "지난 정권 SOC 예산만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1800억원 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정권에서 특정 지역을 우대해 호남이 소외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전남의 현실, 낙후성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SOC 투자도 매칭으로 하는데 낙후되고 자립도 풀려라는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인구·예산 자료를 제시하며 '영남 차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구를 보면 호남이 516만, 영남은 부산·울산·경남만 806만이고 대구·경북이 530만 명"이라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4조4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이 영남에서 삭감됐고 현 정부 들어 아직 인사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육심에는 끝이 없다"며 "지역에서 (소외론을) 더 주장하지 말고 전남도에서 균형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호남 SOC에 대한 논란은 기대수준·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지역발전전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며 "전남 SOC는 취약하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와달라"고 여야의 정치공방을 비껴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2018년 5월 18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http://www.joytour.kr)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히로시마) 직항 전세기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하계 [10. 13(금)-10. 27(금)] 무안(18:20)~기타큐슈(19:30)/기타큐슈(20:00)~무안(21:20)
동계 [10. 29(일)-03. 30(금)] 무안(18:00)~기타큐슈(19:10)/기타큐슈(19:40)~무안(21:00)

항공 3일

북 큐 슈 온천펜션 **499,000원**~
북 큐 슈 **549,000원**~
야마구치 **559,000원**~

항공 4일

북 큐 슈 **749,000원**~
야마구치 **769,000원**~

다낭·후에·호이안 직항 전세기

2017. 11. 17(금) ~ 2018.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다낭(10:40) / 다낭(14:40)~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다낭(00:10) /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핫스프링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99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노팁·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출발) **94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 다낭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금액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제등2003-1호
◆ 공동주최: 여행장비 1인 기준, 여행사보험 가입(여행상품: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법 제 10조,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상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작곡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